

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

KIEP 북경사무소 (hjpark@kiep.go.kr, Tel: 86-10-8497-2870)

차 례 ●●●

1. TPP 발전 동향과 특징
2.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
3. 향후 전망

주요 내용 ●●●

-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(TPP: Trans-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)은 협상 초기 경제규모가 작아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, 2008년 미국의 협상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주목을 받고 있음.
 -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칠레, 브루나이 4국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원한 TPP는 미국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'수준 높은 FTA'를 표방하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 함.
- TPP에 대해 중국정부는 개방적·관망적이며, 중국 전문가들은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 논의 중임. 또한 아시아·태평양 지역경제 협력체로서 TPP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음.
 - 중국정부는 TPP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며,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해 TPP를 포함한 모든 형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.
 - 중국 전문가들은 TPP 참여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두고 조기참여로 표준제정자가 되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, 내정간섭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 TPP의 수준 높은 요구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.
 - TPP의 등장은 중국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,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이 약화된 미국이 경제, 정치, 문화에 걸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음.
- 중국은 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물론 아태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.
 - TPP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진전에 따라 연구하며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, 지역협력과 함께 경제통합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TPP에 대비할 것으로 보임.

1. TPP 발전 동향과 특징

■ TPP는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(TPP: Trans-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)을 지칭하는 것으로, 협상 초기에는 경제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음.

- TPP는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칠레, 브루나이 4국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원함.
- 2005년 이들 4개국이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틀 안에서 2006년 5월 말부터 관세철폐를 발효시키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면서 TPP 협상이 전개됨.

■ 그러나 2008년 미국의 협상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주목을 받음.

- 2008년 2월 미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하고 2009년 11월 ‘21세기 무역원칙’이라는 기치하에 TPP 확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함.
- 2009년에는 미국, 호주, 페루가 가입하고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가입하여 회원국이 4개에서 9개로 늘어났으며, 그 규모는 총 GDP 16조 달러, 인구 5억 명 규모로 확대되었음.

■ 2011년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“내년까지 협정문을 만들기를 희망한다”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참여의사를 밝힌 일본의 선언으로 더욱 진전을 보임.

■ 이 외에도 한국, 캐나다, 필리핀, 대만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참여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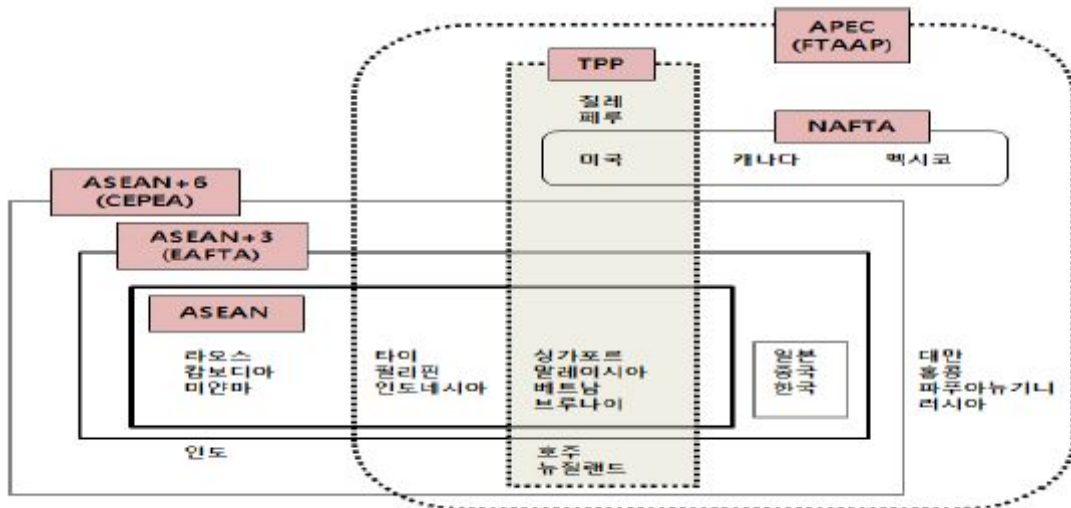
■ TPP는 무역관세 철폐 원칙과 개방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 함.

- 오는 2015년까지 관세철폐 이외에 농업, 노동, 환경보호, 정부구매, 투자, 지식재산권 보호, 서비스 무역, 기술무역 장벽, 동식물 위생검역, 원산지 표준,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“수준 높은 FTA”를 표방하고 있음.
- 이는 자유무역 확산에 대해 타결 가능성이 적은 WTO 도하 라운드와 원칙적 합의일 뿐 이행의 의무가 없는 APEC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임.
- APEC 체제하에 탄생한 만큼 그 원칙 중 하나인 개방성을 견지하며, 자유무역 의지가 강한 소수 국가들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 기존 체결국 간의 협상 동의를 거쳐 점차 회원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삼고 있음.

■ 협상 참여국 간 격차와 기존의 양자간 FTA는 TPP 협상 진전과 타결에 장애가 되고 있음.

- 협상국 간 경제구조와 발전격차는 경쟁, 지식재산권, 정부조달, 노동, 환경, 무역장벽 등의 규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무시한 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-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이미 맺어진 다수의 양자 FTA와의 관계 설정과 우선 적용 순위 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임.

그림 1.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TA 추진 현황



자료: 한국은행(2011), 「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」.

2.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

가. 중국 정부

■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인 동시에 유보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보임.

- 후진타오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“중국은 동아시아자유무역구(EAFTA), 동아시아 전면적 경제파트너관계(CEPEA), 환태평양전략적경제파트너(TPP) 등을 기초로 아시아·태평양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여 경제 일체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”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.
- 중국 상무부장 천더밍(陈德铭)은 TPP가 다자간 무역체제로 WTO의 보충일 뿐 대체는 아니라고 밝히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.
- 중국 외교부장 조리 류민민(刘民民)은 중국은 대외무역관계에 대해 전방위적이며,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공동번영에 유리하다면 TPP를 포함한 모든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함.

- FTAAP(Free Trade Agreement of the Asia Pacific: 아태자유무역협정)를 달성하는 경로로 미국 주도의 TPP 외에 중국 주도의 EAFTA와 일본 주도의 CPEPEA 등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밝힘.

나. 중국 전문가

1) 찬성

■ 조기참여로 표준제정자가 되어 전략상의 주도권을 확보

- TPP 가입으로 아태 자유무역구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ASEAN과의 경제적 보완과 영향력 또한 유지하여 중국-ASEAN 간의 기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임.
- TPP 가입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등의 국가와도 경제적 보완성을 발휘하고, 한국과 일본의 가입으로 이러한 보완성이 확대되어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FTA는 쌍방 FTA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고 봄.
- TPP가 요구하는 수출 시스템 구조, 생산 표준을 전면적으로 조정,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북미와 동아시아 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중국 제조업의 국제화, 고도화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.
- 해외시장을 확장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제자본의 쌍방향 유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봄.
- 수입관세 부문에서 무역상 차별(trade discrimination)을 받을 수 있고 무역전환효과(trade diversion effect)¹⁾에 따른 중국 제조업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TPP 가입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.

2) 반대

■ TPP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조항들과 농업분야는 중국에 부담이 됨.

- TPP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 정부구매, 국유기업 역할 등은 중국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우며 내정간섭으로 비취질 수도 있음.
- 지식재산권 보호, 노동과 환경보호 표준 등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중국의 제조업 수출상품에 대한 원가우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전략적 신흥산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음.

1) 역내국 간 관세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.

-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 속에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의 현 실정에 비춰볼 때 '삼농' 문제를 우선시하며 여전히 중국 인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안정과 발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TPP 가입은 중국 농산물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봄.

■ 중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TPP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²⁾

- 분석에 따르면 TPP 미가입 시 향후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실제 수출과 수입 성장률은 각각 9.29%, 12.37%로 나타났으며, 일본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보면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.27%와 12.33%로 조정됨.
- 측정계측기, 기계 및 전자제조업 같은 부분가공 제조산업이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향후 10년간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8.73%에서 8.72%로 조정됨.
- 취업의 경우 2012~15년 동안 TPP 자유무역구 내 영관세로 인해 중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-0.06~-0.19%로 나타남. 구체적으로 일본의 TPP 가입 후 중국은 연평균 3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, 일자리도 해마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2012년 15만 개, 2013년 25만 개, 2014년 39만 개, 2015년 약 53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.

다. 지역경제 협력체로서 TPP에 대한 시각

■ 우선 중국은 TPP가 중국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입장임.

■ 중국은 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, ASEAN+3(한·중·일)를 중심으로 하는 EAFTA를 통해 자유무역구 건설에 주력해 왔음.

- 중국은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통합과 FTA 발전을 추진하면서 현재 19개 무역 파트너(대부분 아시아 국가들)와 10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, 그 무역액이 중국 전체 무역규모의 1/4을 차지함. 아울러 현재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.
- 중국은 아시아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며 ASEAN+3를 중심으로 하는 EAFTA를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음.

2)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(北京大学中国经济研究中心)과 중국과학원 수학과 시스템 연구원(中科院数学与系统研究院), 국가통계국 국민경제핵산사(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),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합작 개발한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에 적용, 분석한 “일본의 TPP 가입 후 2012~2015년까지 점진적 영관세가 중국, 미국, 일본에 미치는 영향”에 대한 결과.

■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TPP의 급부상으로 중국의 지역협력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음.³⁾

- ASEAN의 FTA 체결은 중국이 처음으로 성사시킨 FTA로 그 의의 또한 남다른데, 세계 개발도상국 중 가장 큰 무역지대인 ASEAN은 FTA 체결 이후 무역교역과 투자규모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성장동력으로서 중국에 큰 의의를 지님.
- 최근 중국의 독주를 우려하는 ASEAN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전환함.
- 더욱이 말레이시아가 TPP에 참여하고,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관심을 보이는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중요한 ASEAN 국가들의 TPP 참여 확대로 중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음.

■ 또한 중국은 미국이 TPP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은 물론 정치, 문화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, 강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음. 즉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약화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인식함.⁴⁾

- APEC의 중요성이 약화된 반면 ASEAN+3의 EAFTA, ASEAN+6(한·중·일·호주·뉴질랜드·인도)의 CEPEA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) 등 지역통합 모델이 출현하고 있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함.
-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G2로 도약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배제되지 않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TPP로 유도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임.

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아태지역과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여 미국의 경제회복 및 발전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인식됨.⁵⁾

-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.
- 대규모 시장규모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태지역과의 FTA 추진을 위해 TPP를 추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 함.

3) 외교안보연구원(2011), 「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과 동아시아 지역협력」, (12. 28)

4) 东方早报(2011), 「TPP效应中的中国因素」, (11. 17); 工业和信息化部赛迪研究院(2011), 「如何应对美国TPP新战略?」, (12. 19)

5) 中国网(2011), 「未来TPP对亚太经贸格局的影响及中国对策」, (2. 12)

3. 향후 전망

■ 향후 중국은 TPP에 관련된 조항과 규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참여시기를 살필 것으로 보임.

- TPP 협상 의제와 진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계경제 형세와 국제정치 구조, 종합이익 등을 고려하며 TPP 참여에 적합한 시기를 조율할 것임.
- 정부구매, 국유기업 역할의 한정,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, 노동·환경보호 분야 등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.
- 일단 옵서버(Obserber)로 TPP에 참여하면서 각국과 소통을 강화, 점진적인 준비를 할 수도 있음.

■ 아태지역 국가들이 TPP 참여의 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중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아태지역 경제무역 협력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음.

- 중국은 세계경제 분업과 시장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국을 배제한 아태 경제협력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- 현재까지 TPP 참여국가 중 7개국(칠레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베트남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페루)은 이미 중국과 FTA를 체결했으며, 현재 협상 단계인 호주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, 일본 또한 한·중·일 FTA를 준비 중임.
- 중국-아세안 FTA를 심화 발전시켜 ASEAN 국가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게 하고, 중국 수출품에 대한 영관세를 추진하여 무역확대를 도모할 것임.
- 한·중·일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아태 지역협력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, 농업 분야에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, 대처하도록 할 수도 있음.

〈참고자료〉

- 国际财经时报 2012. 「中国与制衡TPP?」. (1. 17)
- 외교안보연구원 2011. 「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과 동아시아 지역협력」 (12. 28)
- 工业和信息化部赛迪研究院 2011. 「如何应对美国TPP新战略?」. (12. 19)
- 国际商报 2011. 「TPP之感 中国如何解?」. (11. 26)
- 北京大学中国经济研究中心. 2011.简报2011年第031期 「对TPP影响的模拟分析」. (11. 24)
- 中国经济网 2011. 「专辑分析：美国欲“踢”中国“屁股”」. (11. 23)
- 财经 2011. 「中国应参与TPP谈判」. (11. 21)
- 东方早报 2011. 「TPP效应中的中国因素」. (11. 17)
- 东方早报 2011. 「TPP对中国意味着什么」. (11. 16)
- 中新社 2011. 「中国外交部：对TPP持开放态度 尚未参加谈判」. (11. 15)
- 한국은행. 2011. 「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논의 상황과 향후전망」. (6. 20)
- 中国网. 2011. 「未来TPP对亚太经贸格局的影响及中国对策」. (2. 12)

자료 정리: 중국북경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김상국 (crebiz39@gmail.com)